

■ 전문의 칼럼

최신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조기 검진 및 원인 치료

PET Scan → 베타아밀로이드 확인 → Aduhelm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주사
PET Scan → No 베타아밀로이드 → 2년 후 재확인 PET Scan

근래에 미국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매 치료제를 허가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일종의 변형된 단백질이다. 이러한 변형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시키며 뇌세포를 사멸 시킨다.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환자의 인지능력 또한 저하된다.

하지만 PET Scan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기 전,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초기에 진단하여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 치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지적 능력을 상실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즉 기억력, 사고력 등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모든 뇌 질환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 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변형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인지능력의 저하가 오게 되는 질병이다. 변형된 베타아밀로이드가 염증을 일으키며 뇌세포를 사멸시키고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환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일단 치매 증상이 생기면 이미 베타아밀로이드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많은 양의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있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약물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뇌세포의 사망과 더불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호르몬

의 감소가 오는데 기존의 모든 치매 약은 이 부족한 아세틸콜린 신경호르몬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만 한다.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 치료다.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여도 베타아밀로이드는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인지장애 또한 계속 나빠진다.

반면, 새로이 미국 FDA에서 허가한 아두헬름(Aduhelm)이라는 치매 치료제는 기존의 증상 치료제와는 달리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해 주는 약물이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시작되기 전, 뇌 PET Scan 예방검진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치매 예방차원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면 치매가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 치료인 것이다.

위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암을 일찍이 진단하여 치료하듯이 PET Scan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또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약물을 사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이제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었다.

시스템 통증병원 & PFP 센터
박재우 MD
(714) 399-7000
4840 Irvine Blvd, #203
Irvine, CA 92620(시온마켓 몰)



■ 교육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 하는 마감일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 전형의 경우 빠르게는 11월 1일이나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정시의 경우에는 빠르게는 2월부터 시작하여 3월 혹은 그 이후까지 대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재정 보조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기한에 맞춰 지원서를 내는 일이다.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신들이 학자금 용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FAFSA)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 미국교육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그랜트(연간 약 5,8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 조차 내지 않아 이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계 수입이 6자리(10만 달러)를 넘는 가정들의 경우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의 숫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도 고려해 학자금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사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FAFSA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 보고 관련 자료는 직전년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가을에 대학 진학할 학생들은 부모의 2021년도 세금보고 자료로 신청할 수도 있다.

보통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 보조는 일찍 내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AFSA 신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FAFSA는 이달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셋째, FAFSA 신청 시 지원하는 학교명에는 자신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만이 아닌 지원하는 모든 학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 번에 열 군데까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넷째,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 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섯째, FAFSA를 제출하면, 교육부 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수한 경제 상황(최근에 일어난 휴직, 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 가정의 사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할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